**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6.25 전쟁 67주년:** 순국선열들을 위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ㆍ난민후원 바자:** 오늘, 책 장난감 의류 등, 적극 참여해 주세요.

**ㆍ제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ㆍ섬김이 독서보고서:** 제출 요망

**ㆍ전출:** 김종필-조혜정/서희 준희, 이종환-채정현/진우 승진

**ㆍ생일:** 강병주, 강수정, 이태민

**ㆍ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현황:**

미수습자: 단원고 2학년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학생,

단원고 교사: (고창석), 양승진님, 일반: (이영숙)님, 권재근/권혁규 부자

**◆ 말씀일기 일정**

일/왕상21:1-10 월/왕상21:11-29 화/왕상22:1-14 수/왕상22:15-28

목/왕상22:29-40 금/왕상22:41-53 토/갈라디아서1:1-10 일/갈1:11-24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35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6월 25일** | **7월 2일** | **7월 9일** | **7월 16일** |
| **예배기도** | 유근임 | 이미전 | 이은지 | 임선향 |
| **말씀일기** | 김종필 | 김다니엘 |  | 김평님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정기승, 예배부 | | |
| **헌금위원** | 석호선, 유근임 | 이미전, 이은지 | | |
| **애찬봉사** | 밥상 다섯 | 밥상 여섯 | 밥상 일곱 | 나라주일 |

35-26호 2017년 6월 25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주일 1부예배: 12:15

주일 2부예배: 14:00

주일 유초등부 예배: 14:00

주일 청소년부 예배: 14:00

토요기도회: 07:00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목사/ 손교훈**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협동목사/ 이광열** Mike Lee

☏ 0211-4166 3284 HP. 0157-7388 7498

**교육목사/ 이재용** HP. 0157-5346 6942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 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Eingang …………………………………………………………………………………......... | 다함께 |
| ※송영/Eingangslied ……………………………………………………………………………… | 찬양대 |
| ※찬송/Gemeindelied …………………………… 12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99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438장………………………………… | 다함께 |
| 기도/Gebet ………………………………………………………………...................... | 유근임 집사 |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성경봉독/Text zurPredigt …............…마태19:16-30 …..….....……..….…..... | 김종필 집사  다함께 |
| 찬양/Loblied ......…………………………….......………………………….......…………… | 찬 양 대 | |
| 설교/Predigt …………………… **하나님 나라4-*나눔*** .........……… | 손교훈 목사 | |
| 찬송/Gemeindelied ……......………………… 465장 ………………………………  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 함 께  다함께 |
| 교제와 나눔/Bekanntmachung ……............….................................................. | 인 도 자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왕상20장 ‘갑옷 벗는 자’ ◈**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11, 새번역).  
  
 내가 보기에 이 말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최고의 격언이다. 10여 년 전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 개성 거쳐 판문각에 이르러 판문점을 코앞에 마주하고 섰을 때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슬픔 답답함 안타까움 들이 오늘 다시 가슴으로 전해져 온다.   
 그 때 내가 방명록에 썼던 문구가 이런 비슷한 것 아니었나 싶다. "남과 북의 군인들이 총칼을 내려놓고 군복을 벗고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아이러니한 것은 11절의 이 멋진 말이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 아합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아합 왕이 순전한 평화주의자였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었다. 어쨌든 악인의 입에서도 간혹 진리가 선포되기도 하니....  
 하나님은 아합에게 거룩 정결 복종을 가르치시려 아람과 싸우라 하였더니, 아합은 평화를 핑계로 자기 영광을 앞세웠다. 얼핏 잘 이해되지 않는 한 선지자의 규탄의 핵심은 바로 '네 스스로'(40)주의였다.   
 폴 투르니에가 자신의 책 "고독"에서 말한 것처럼 특히 현대인들은 '독립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 거기서 소외가 온다.   
 그 어떤 명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갑옷을 벗는 일이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먼저, 이런저런 것으로 중무장한 '내 스스로의 갑옷'을 벗어야 한다.

**◈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곳 ◈**

▶스펙트럼 교회(이광열 목사)

▶'겨자씨' 모임(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

▶NRW 평신도연합회

▶유럽 기독교교육원: 어린이 연합 캠프, 청소년 연합 캠프(JC)

▶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이명선 총무)

▶유럽 코스타(청년수련회) ▶유럽 크리스찬 신문(이창배 목사)

▶예장 유럽선교회 ▶우크라이나 임현영 선교사

▶장학 지원 ▶북한 선교 ▶디아코니 협력 후원

▶굶주린 이웃 돕기 (케냐 총게노 고아원, 이은용 선교사)

▶기타 구제 사업 ▶선교관 기금 마련